



(31) 배종열 前 전국농민회의장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임자도

“노무현에 실망...대통령은 준비된 사람이라야”

“한미 FTA협상은 실패작입니다. 자동차도 스크린 컴퓨터도 모두 못 지키게 됐어요. 소고기는 농민 생존권,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미국 보다는 중국 수출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일본, 중국과 연합한 뒤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는 지난 2002년 대선 때 광주에서 이회창 후보를 낙선시키고,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키자는 지역 인사들의 성명에 참여했다.

“함께 활동할 기회가 없어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회창을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노후보라고 생각했지요. 국민정부에 많은 활동을 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서울·충청·부산 등에서 조금씩이라도 표를 얻으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절대적 지지라기 보다는 차선을 택했던 거예요”

그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위주의 경제 정책을 멀리하고, 통일 위주의 정책을 펴주기를 바랐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많은 준비를 해 6·15공동선언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지만 IMF 탈출시 필연적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정치는 물론 경제 등 다방면을 잘 알아야 하고 많은 준비를 해온 사람이야 한다고 하며 바람직한 대통령상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국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 보다는 범여권 단일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은 실패작

中·日과 연합했어야 효율적”

농민운동하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면 김근태 후보가 최선이지만 대중적 인기가 떨어져 경쟁력이 약하고, 손학규 후보는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준비가 돼 있지만 FTA를 찬성해 농민인 자신으로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은 민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통일 지향적인 사람이야 합니다. 통일 없이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그지만 정작 자신은 정치 참여에 관심이 없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농업과 농민이다.

그의 부모님은 소작농이었고, 자신은 2남 3녀 중 첫째 아들로서 농민들의 가난을 처절히 겪었기 때문이다.

1957년 함평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듬해 단국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1학년을 채 다니지 않고 중퇴한다.

“농고를 다닐 때부터 농민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했지요. 대학도 농민운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생각했고요. 국문과를 택한 것은 우선 (내가)국어학을 좋아해서고, 장기적으로는



약력

- ▲1933년 무안군 해제면 유원리 출생
- ▲전남기독교농민회 초대, 2대 회장
-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초대, 2대 회장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및 광주 전남본부 상임의장
- ▲전국 농민회총연맹 3, 4대 의장
-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
- ▲무안채소산업발전연합회 회장

해제면에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었습니다”

50년대에 무안군에는 중학교가 단 2개 뿐이었다. 국립인 일로읍 무안중과 사립인 망운중이었다.

그는 단국대를 중퇴하자마자 고향에 내려와 해제면에 사립중학교 설립 운동을 펼친다. 결국 수년 후 뜻있는 인사들과 지역인사들의 모금 등을 통해 해제중이 세워진다.

이후 평생을 농민운동에 바친 그는 1994년 무안의 9천 농가가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고 있지만 판로가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무안군양념채소류유통사업영농조합을 세운다. 이후 1998년 전남서남부채소농협으로 확대, 명칭을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0년, 배종열씨가 채소농협을 방문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저온 저장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바뀌 2000년에는 농협중앙회에 가입했으며 2001년에는 산지유통전문조합으로 선정됐다. 또 2002년 3월에는 전국 1천 385곳의 농협 중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안정사업 핵심농협으로 선정됐다.

그가 이끌어 온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농협조합으로 꼽힌다. 회원도 초기 200여명에서 지금은 940여명으로 5배나 늘었고, 여자자금이 4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해 번 돈만 35억원이라는 게 그의 자랑이기도 한다.

그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매일 새벽 2시30분이면 잠에서 깬다. 일어나자마자 호흡을 통한 ‘영성훈련’을 한다. 이후 남산에 올라 오전 11시까지 등산을 한다. 등산 중에는 핸드폰도 꺼 놓는다.

무안 양파 살리기 앞장

“주산지 우대정책 펴야”

요즘 그의 고민은 무안의 주 생산물인 양파의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 높일 것이냐는 것이다. 국산은 6월에 생산되지만 미국산은 10월에 생산된다. 결국 10월 이후에는 국산 저장양파(저장고 이용 및 추가 물류비용으로 가격 인상)가 값싼 미국산과 겨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산지 우대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농민은 스스로 브랜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양파즙과 같은 양파 관련 제품들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생각중이다. 무분별한 제품 양산은 질적 저하를 가져와 무안 양파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취기자 chae@kwangju.co.kr
/사진=나평기자 mjna@kwangju.co.kr

군량미 수송 해상 요충지 조선시대 최대 민어 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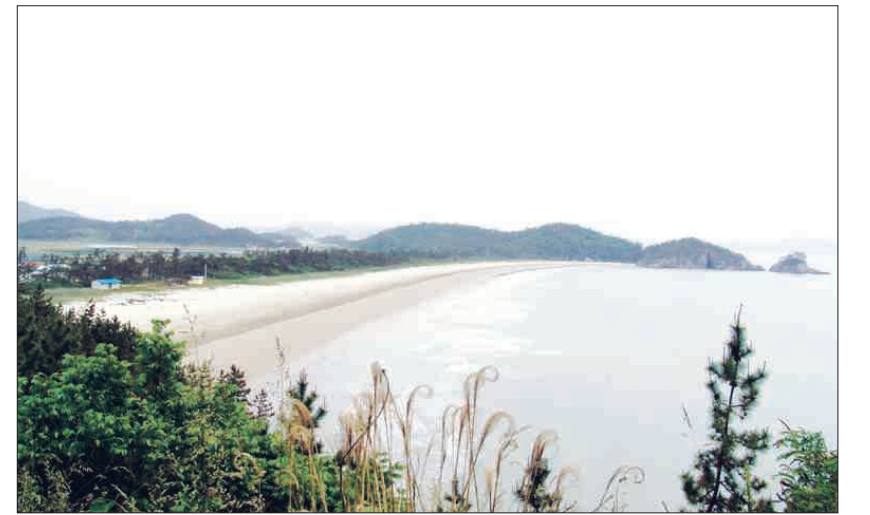
올해부터 방어축제를 한 지도(智島)의 점암에서 지난달부터 밤배도 뜨는 신안군 최북단 임자도를 찾았다. 국내 최장 대광해수욕장(30리)과 해당화, 타리 민어와 전장포 새우로 유명한 섬이다.

형세가 푸른새(靑島), 휘달러 나가는 범선(行舟), 승전한 장군(霸將軍)이다. 들깨가 많아 임자(任子)로 해석하지만, 해제 임수리 임치(臨濼)와 달리하기 위해 칭했다는 풀이도 있다.

임자도 모래사장이 사암을 비롯하여 응회암질 이암, 화강암, 유문암, 안산암, 응회암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들깨로 여긴 것이다. 수천년간 쌓여 ‘사막의 섬’으로 일컫게 됐으며, ‘물(모래)치’는 오아시스다. “임자도 큰 예기는 모래 서말을 먹어야 시집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본섬은 원래 장포만을 중심으로 남쪽에 최고봉 대둔산(320m)이 있는 개요지도, 북쪽에 한틀(대기), 갈미, 진도, 패길도로 구성돼 있었다. 면적 47km² 중 7.6km²가 자연 퇴적으로 생긴 땅이고, 10km²가 ‘빨판배미’다. 장포도를 비롯 삼막면, 이취암면, 마암면 등 20여개가 축조됐다.

백제 때 가락(古祿)지현, 신라 때 예해현, 고려 때 영광 소속이었다. 1270년 공도



임자도 어머니해수욕장.

(空島)령으로 영광 구수산자락의 요골(요동)로 이주했다. 1415년 종달이버던(終達埠)에 목장이 설치됐다. 장포를 중심으로 길이 20리, 넓이 5리 목장에는 감목관과 20여명의 목자가 말 175필을 관리하다 1796년 농토로 개간됐다.

1711(숙종37)년 임자진이 진리(鎭里) 466·542번지 일대에 설치됐다. 우수영과 고군산을 연결하는 서해 해로의 중간 기착지이며, 요해처로 해안방어, 군량미 운송에다 증도와 고이도 목장까지 관할했다. 옹황목 초대 지도군수는 1897년 ‘수정환과 생백담’이란 관아 편액을 보았고 정무일지인 ‘지도군총쇄록’에 기록했다.

1851년 우봉(又峰) 조희룡(趙熙龍·1789~1866)이 이취암(육암)리로 유배되어 3년간 머물고 간다. 만마리 갈매기가 우짖는 집에서 황산병운도, 괴석도, 매화도, 목죽도를 그려 ‘조선 문인화’의 독창적 예술세계를 열었다.

하우리 뒷섬타리(나바바구)쪽은 파시(波市)로 소문났다. 1925년 동아일보는 타리 어장은 민어로 조선에서 제일 큰 곳으로 소개했다. 농가 한 채만 있던 곳에 파시 때 초막 수백호가 생기고 어부 수천 명 외에 놀러오는 사람이 매일 5~60명씩 왕래하여 전국 산업시찰의 대상지가 됐다. 가계 116곳(잡화상14·육탕1·세탁4·이발5·음식점61·요리점18·선구상6·병원2·중계업5)에 창가만 130명이 있어 “전라도는 플라도 타리도는 안다”고 했다.

/김경수(사해문화진흥위원장)

■ 위성 412번 ■ 케이블 TV 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서남권 59번, 담양 42번

CBS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날마다 감탄하세요
은혜와 감동이 쏟아집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서남권도 TV설교가 시작됩니다.

TV강단 매일 새벽 5시 30분
오전 8시 25분
오후 3시 5분

TV강단 매일 오전 8시 25분

TV강단 매일 오후 3시 5분

월 허태호 목사 (새희망교회)	화 송재식 목사 (광주서원교회)	수 박은식 목사 (광주서원교회)	목 윤세관 목사 (광주계림교회)	금 이길수 목사 (광주예향교회)	토 리종기 목사 (빛과사랑교회)
월 주연도 목사 (광주동성교회)	화 최학휴 목사 (기정 광주영광교회)	수 손승기 목사 (하남은광교회)	목 김성원 목사 (광주중흥교회)	금 이상복 목사 (광주동명교회)	토 백주석 목사 (광주포도원교회)